

작년에 저희들 우리 여기 위원님들 심의한 것을 저희들 다시 도 심의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등에서 10등 한 사업이 탈락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해됩니까.

-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례나 규제돼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포괄적이다 보니까 지역에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그런데 공공 아닙니까 참여예산이 다 공공의 목적으로 만드는 거고 신청을 하는 게 참여예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큰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열어서 규제를 다 풀어주는데 지역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런 걸 한번 어떤 위원회 구성해서 현장 조사해 봐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다.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제안은 안 되겠습니까.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과장님 8월 3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의 전부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읍면에서 출장을 간다고 얘기할 때 이런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 제외된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전에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제가 시에 출장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팀장이 와가지고는 불가사업 이 부분은 어촌계 사무실에 같이 쓰면서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통보를 듣고 왔는데 이런 불합리한 조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이 부분을 시에서 8월 3일날 이 부분을 공무원끼리 의논하면서 이 얘기를 전달 100% 했는데 추자면은 저한테 전달 안하건가요.

■ 간사(기획예산과장)

- 초과 사업은 제출 금액의 4억 8천, 3억 5천에서 사업 순위에서 제외된 거고 8월 3일날 논의한 거는 사업을 검토하면서 불가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가 인허가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이거는 참여예산으로 불가한 사업인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제가 불가사업에 대해서 얘기한게 아니고요.

■ 일도2동 이호성 위원

- 우리 지역회의 참여예산 회의가 종료가 돼버렸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회의가 형성이 되잖아요 3번, 4번이 됐든. 그러면 이미 거기서 어떤 사업을 통보만 해버린 다음에 여기서 불가하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다 결정해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 위원장(부시장)

- 네 박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경호 위원

- 네 안녕하세요. 박경호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토론하셨고 아까 원성현 위원님이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제 생각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은 지금 과에서 편성불가 사업을 먼저 설정을 하고 나서 한도초과 사업을 정리를 해야 그 지역의 배분에 맞게 운영이 되는데 제출한도 초과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편성불가 유형 사업을 하게 되면 제출한도 유형 사업을 다시 올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추자 오영수 원장님께서 조금 어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4억 8천, 3억 5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정됐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정협의회에서 오늘 어떤 것들을 심사 할 건지 결정을 하고 나서, 각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을 받아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또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 그렇다면 지금 추자면에서 지금 한 8가지 사업 정도가 초과제출로 한도에서 배제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4억 5천, 4억 8천인가요? 4억 8천이죠.
그러면 4억 8천에 맞게 지금 추자 위원장님이 몇 개 항목을 추자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맞게 다시 조금 복원해가지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 저희가 지금 안건을 2-2호를 그냥 이대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제가 내역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한도에 맞춰서 진행돼 있기 때문에 신청한 금액이 다 맞고 한도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추자면만 한 2억 8천 정도 사업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항목을 다시 살리면 좋을지 얘기를 해 주신다면 그거를 심사제외에서 빼고 그 안건을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저기 이 부분을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지역회의 위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료 시에서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참여사업 중에 1개 제외 사업해서 11개 사업을 순서대로 지역 위원들 투표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아까 박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준다고 하면은 5번까지 사업하면 4억 7천만 원이 딱 돼요.

■ 화북동 김충임 위원

- 저기 저도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화북동 참여예산위원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들으니까 읍면동마다 참여예산 회의를 해서 7월 19일까지 정리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화북동인 경우에는 참여예산이 처음에 주민들에게서 올라옵니다.

○ 올라오면은, 불가사업들을 전부 거릅니다. 저희도 뭐 확장실 지어달라고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전부 불가사업은 다 걸러서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화북동은 지금 지역참여사업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은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전부 불가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안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별계만 얘기하다 보면 회의가 진행이 너무 늦어질 것 같습니다.

○ 또 우리 아까 형평성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추자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여기서 불가판정 되는 사업을 또 되는 걸로 이렇게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추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불가사업은 아예 시에 안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라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깐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7쪽에 보시면요, 우리 평가대상 사업의 초과한도 기준을 읍면 4억 8천, 동은 3억 5천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제출한도 초과사업을 제외하고 편성불가유형 사업을 제외하면

○ 한림읍도 4억 8천인데 1억 9천 3백, 그 다음에 매월 1억 9천 5백, 구좌가 총 많네요. 4억 5천 되어있고요. 일도1동, 삼도1동, 그다음에 화북동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 한도를 3억 5천까지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부분까지 조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편성 한도액 구분도 있고요. 44억 8천 5백만 원까지가 저희 편성 한도액인데 지금 평가대상 사업만으로도 지금 3억 83백만원이 초과된 부분입니다.

○ 네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 박경호 위원

○ 네 편성불가 유형 사업은 사업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제외되는 항목의 사업인거 같아요.

■ 감사(기획예산과장)

○ 예 맞습니다.

■ 박경호 위원

○ 근데 제출 한도초과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검토 없이, 그냥 한도가 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자른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 한도 사업 같은 경우는 15건이 있는데 이게 편성불가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 간사(기획예산과장)

- 이거는 지금 초과 사업으로 해서 검토가 아예 안 된 겁니다.

■ 박경호 위원

- 이게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실은 초과 한도를 먼저 할 게 아니라 편성불가 유형부터 해서 그다음에 한도초과 사업을 검토해야 지역에서 신청한 금액이 넘을지 안 넘을지를 평가되는 건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먼저 금액부터 맞춰놓고 편성불가 유형을 해버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좋은 의견의 사업도 아예 제외 대상이 돼버린 거죠.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지정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당초에 편성불가를 먼저 검토를 안 한 거는, 편성불가 사업은 읍면동에 제출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읍면동에서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편성불가 사업은 제출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읍면동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해가지고 이 사업을 올렸겠어, 어느 읍면동 지역위원장이 읍면동 사업 검토 안 하고 그냥 시에 바로 올립니까.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결정하기 다 어려운 사항이니까 시 관련 과나 관련 팀에 이러한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아까 박경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이거 다 정해놓고 우리보고 동의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 일도2동 이호성 위원

- 사회자님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박경호 위원님 말도 맞는데, 읍면동 지역의 불가사업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미 7월 19일인가 그때까지 사업 다 제출하라고 그래서 끝났는데, 저희 지역회의는 다 종결됐잖아요.

-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순서를 먼저 이걸 두 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갖자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도 참여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해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하라 제출하라 해가지고 딱 이거 갖고 와가지고 승인해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를 좀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자꾸 죄송합니다. 8월 3일날 읍면동 직원들 배석해가지고 할 때 이 얘기도 해야 되지. 편성불가유형 사람만 얘기해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선 얘기안해주고요.

■ 용담2동 이동화 위원

- 저기 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저 부시장님 의사진행 발언 용담2동 위원장인데요. 지금 회의가 지금 특정한 읍면 질의 청문회식으로 가는데 지금 그 부분은 추지면의 담당 공무원들이 읍면 4억 8천, 동 3억 5천 해서 제출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 떠들면 나머지 분들도 시간 있는데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 위원장(부시장)

-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긴 합니까마는 편성불가유형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결해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 그 다음에 제출한도 초과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내부와 읍면동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읍면동 제출 한도가 이제 4억 8천이고 동이 3억 5천이면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부시장)

- 그러면 안건 2-2호 제출한도초과 사업 심사 제외의 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10분간만 정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

■ 위원장(부시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부시장)

-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으로는 의논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시간적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를 했을 때 의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패년 되풀이되는데 매년 내년에 제대로 개선해보자 해서 꼭 해왔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지역참여사업 선정에 대해 가지고 잠깐 제가 과정을 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7쪽에 보니 제출사업이 이제 81억이 제출돼 있습니다. 81억이 제출돼 있는데 여기에 제출 한도액이 우리가 이제 공문으로 보내드린 부분이죠.

- 우리가 읍면동으로 문서를 보내드린 게 읍면동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은 4억 8천 그다음에 등은 3억 5천 이 이상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저희들이 제출 받아보니까, 여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좌 같은 경우는 4억 8천 제출해야 될 걸 10억 4천, 그다음에 추자 같은 경우는 4억 8천 제출해야 되는데 15억 1천 3백 그렇게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 그다음에 추자면만 놓고 보면 추자는 이제 4억 8천만 제출이 돼야 하는데 4억8천만 원 수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편성불가 유형의 사업비 2억7천을 빼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억 8천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천 2억 2억 천까지밖에 이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의 또 다른 델 보면은 예를 들면 우도면도 4억 8천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기는 편성불가 사업을 제외하고 해서 1억만 올렸고, 일도1동도 3억 5천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보니까 편성불가 유형 사업들 다 제외시켜 가지고 3천만 원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한림이나 애월이나 구좌나 읍면에서는 불가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도 좀 부족했지만, 제주시하고도 좀 협의가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성불가 사업은 읍면에서 올릴 때부터 사전에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이나 시나 같은 맥락에서 고민하고, 시하고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라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그 읍면과 예를 들면 한경이라든가 건입, 이동이동, 오라동, 아라동 이런 읍면동과 다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고, 추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면하고도 서로 사전에 조율은 원만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선 사업 순위로 해가지고 조정해서 올리는 그 부분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 사업 순위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사전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올리고 빼고의 형평성 문제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아까 좀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부분은 편성불가유형 사업은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편성불가유형 사업은 제출한도 사업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 그 다음에 제출한도초과 사업은, 제출한도초과 사업은 있어서 안 되고 이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올라오는 대로 심사 대상에 붙인다. 이런 제도 개선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원님들 좀 있으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화북동 김충임 위원

- 정회 시간에 저희가 다른 읍면동 위원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결과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의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마을 주민들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걸 걸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지역화의이고 그렇게 걸러지는 겁니다.
- 추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어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전은 원안대로 지금 통과를 시키고 차제에 다음부터는 편성불가 사업에 대한 범위를 조금 확대 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최대한 약간 여유 있게 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담당 직원들이 해서 다음부터는 좀 여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안전은 원안 처리하고 다음 안전으로 넘어가기를 저는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노형동 고성룡 위원

- 같이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2억밖에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심사에 올라가 있는 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될 때는 110억으로 시작했고 180억원이 증액됐는데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조직들이 다 돼 있고 그 밑에 마을도 있고 이장도 있고 여러가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조직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늘어나는 거를 보니까 시정참여나 광역, 청년, 현안 이런 데로 늘어나면서 지역참여사업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던 말이지요.
-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물론 행정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2억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이 건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4억 8천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추자면도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예 혹시 다른 위원님 발언 의견 있으십니까?
-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편성불가유형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지 않았었나 싶고요. 편성불가유형 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을 배제를 사려가지고 4억 8천까지 편성하자고 저도 방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또 보니까 내부 자침이 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

부분이 맞죠?

- 그래서 이 편성불가 사업하고 평가대상 사업 두 개를 합쳐서 그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4억 8천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만큼 편성불가 사업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으로 편성불가 사업을 올려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심의 과정상 복잡성이 있으니까 아예 편성불가 사업을 올리지 말아라.
- 그래서 편성 불가 사업하고 평가대상 사업을 합쳐가지고 읍면 4억 8천, 동은 3억 5천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쉽게 의원님 말씀처럼 추자면이 2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을 더 올려가지고 4억8천을 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아니 자꾸 저희 추자면 때문에 이렇게 계속 회의가 길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무관님이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문자 한번 돌려 드릴게요. 이걸 회의 직전에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예산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전 무슨 얘기나 하면 이것을 다 결정해놓고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결정해놓고 우리는 둘러리 해가지고 심의하라는. 조정협의회 회의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 그러면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개선 사항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미리 8월 3일날 왔을 때도 이런 자료가 이미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3일날 공무원들 대동해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인지해서 답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자료를 이렇게 다 확정해 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안 내용이에요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거냐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좀 간과 하셔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조용해지지, 저 개인적 발언으로 저도 한 성질 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가만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 위원장(부시장)

- 아닙니다. 제가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오늘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을 올려서 또 의결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두세 번의 어떤 속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반성합니다.
- 오늘부로 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회의라는 게 한꺼번에 다 의결 낼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 합의제 기관의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보지만, 오늘 같은 경우를 보니까 회의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내부적으로 검토와 읍면동 실무 직원들까지 이제 서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고 하다보니 다시 다른 형태로 변화를 줬을 때에 또 합의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성불가 유형 사업은 그만큼 아까 편성불가 유형 사업은 이제 평가 대상까지 합쳐가지고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읍면동 직원한테 충분히 숙지도 시켜야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충희 위원님

■ 한림읍 김충희 위원

- 편성불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재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에 각 동네다가 주민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편성불가 사업도 중구난방으로 올리다 보니까 오는 같은 일이 생긴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위원장님 저희들이, 물론 지역회의 위원들이 무능한 것도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성불가 사업을, 이 사업 내용을 우선순위 정해서 올렸잖아요. 편성불가 사업을 8월 3일 날 우리 주무관이 와가지고 이걸 좀 불가하다고 한다. 알았다.
그러면 다음 순위로 밀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행정에서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게 지역회의 위원들한테 얼마나 숙지가 잘 돼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이걸 행정의 잘못 아니에요?

■ 위원장(부시장)

-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안이 올라오면 지역에서, 읍면동에서는 검토해서 가능 사업으로 올리겠죠. 다 가능할 것이다. 가능성으로 올리는데 내부적으로 올리는 과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또 불가한 걸로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 이거든요.
- 기본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절차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한림읍 김충희 위원

-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요. 편성불가 사업이 해당할지 않을지 분명히 저희들이 지역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읍면동 담당자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 편성불가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를 저희들이 미리 좀 빨리 알았으면은 우선순위에 이런 것도 변경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황당한 면이 있고요.
- 또 하나는 여기 초과 사업들이 이제 4억 8천까지만 제출하기로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다른 읍면에서 올렸는데, 그거를 사전에 초과 사업을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참여예산 회의를 꼭 하다 보면 이렇게 숙의 과정들도 없이, 지역회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예산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희들이야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다음 2024년도부터 충분히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삼양동 원성현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나눠서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자꾸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편성불가유형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걸 올렸을 뿐인데 해당 담당 실, 국장님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 근데 우리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편성불가유형 사항일 때에는 담당 부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다음번에 그런 사업들을 안 올리지. 안돼 이렇게 앉아서만 하는 것처럼 느껴 지거든요.
- 진짜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는건가, 해주려고 하는건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 있게끔 편성불가유형 사업이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분이 왜 안 되는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반복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예 고맙습니다. 지금 편성불가유형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편성불가사업이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편성불가유형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의 회의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예 신청조차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전에 절차가 우리가 내년엔 회의를 한 번 더 열더라도 그런 식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들은 저희들이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애월읍 고정학 위원

- 아까 우리 오영수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한 불합리한 조건 대해서 계속 발인을 했는데 저희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불가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았고 또한 마을에 다 전달을 미리 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행정에서는 우리 주무관들이나 팀장님 역할인데 전달하는 그 과정이 좀 미비되지 않았나 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 미리 전달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그 마을에 다 통보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이고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지도 못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2호 안전에 대해 제출한도초과 사업 심사 제외 여부 결정에 대해 위원님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 위위원장

- 원안 동의합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원안 동의 못 합니다.

■ 화북동 김충임 위원

- 에 그러니까 위원님 회의를 해야 되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원래 걸려지는 건데 지금 안 걸려진 부분은 저희 화북동 같은 경우에는, 최종합시다라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회의에서 전부 걸렸습니다. 걸러가지고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을 해서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하고 제가 보기에는 추자면 위원장님은 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다른 예산을 갖고 사업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그거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아니 제가 자꾸 떨어진 섬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지역 의원은 있습니다라는 여기는 담양 동마다 지역구 의원이 두 사람 있는 곳도 있고 한 사람 있는 곳도 있고 지역구 의원이 다 챙기지 않습니까?
- 저희들은 주민 스스로가 이런 예산을 챙기지 않으면 알 그대로 변방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자꾸 얘기하면서 화가 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도에 회의 하면서 문의하니까 참여예산 가이드라인이 4억 8천이지만은 우선순위만 정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조정하려면 4억 8천을 조정해 보냈죠. 지금 우리 주무관 지금 가시방석입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다 물어 보고하고, 자기도 녹음 녹취도 하고 그랬는데 와서 보고 싶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제가 동의를 하면은 제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부시장)

-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지침 전달이 좀 잘 서로가 소통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추자면 오영수 의원님께서 어떤 사업이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여기서 말입니까?

○ 저희들이 참여사업 신청한 내용 중에서 지역에 온 그대로 투표를 해가지고요. 투표해서 우선 사업으로 다 주장하고 있으니까 순위별로 하자. 그래서 그 순위를 그대로 시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자꾸 한 얘기지만, 8월 3일날 봤을 때 이번에 신양어촌계 소득증대 사업은 이게 좀 불가한 사업이다. 그럼 불가하면 다음으로 미루면 될 거 아니냐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이 순위대로 결정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어떻게 말입니까?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지역 위원들이 사업이 1번, 2번, 3번 등 순위를 매겼는데 순위 매긴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사업이 선정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화북동 김충임 위원

○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면 다른 동들도 지금 저희도 지금 수십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화북동도 그렇지만 참여예산의 성격이 안 맞는 거라서 전부 안 올려서 이렇게 된 거지 자꾸 추자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올라온 거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다른 읍면동들도 지금 보류된 거 그럼 다시 다 올릴 건데요.

■ 위원장(부시장)

○ 올려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좀 듣고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3번에 보면은 1999년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공동묘지를 국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농지에다 묘지를 못 쓰게 해가지고 묘지를 쓰게 하는 지정된 장소에 쓰게 해서 공동묘지가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벌초을 하려고 해도 가시녕쿨이 있어서 못가니까 여기를 저희가 민자로 자부담을 해서 가지치기도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의 사업들이예요. 이게 아까 화북동 위원장님처럼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정한거예요 예산을 다 막 던지는 게 아니고.

■ 위원장(부시장)

○ 그러니까 위원님, 추자면 대왕산 동쪽 공동묘지 유지보수 사업 이 부분도 사유지고 해서 산지 전용 허가 같은 사항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추자면 오명수 위원

- 부시장님 저희들도 이 내용 몰라서 두 번째 올리겠습니까? 시의 공원녹지과하고 전부 협의 끝에 올린 겁니다. 작년에도 올려가지고 부시장님 말씀처럼 똑같은 걸로 제외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 자부담도 3천만 원 다 마련해 놨다고요.

■ 위원장(부시장)

- 이거 혹시 환경 관련 검토한 결과 예기에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추자면 오명수 위원

- 시에서 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올린 거죠.

■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

- 혹시 환경관리과 오셨을까요? 공원녹지과 오셨을까요?

■ 위원장(부시장)

-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그냥 안 된다고 불가사업을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추차하고 서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나 싶은데. 불가 사유가 사유지이고 산지 전용 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 조차도 올리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 추자면 오명수 위원

- 작년에도 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 공원녹지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도 검토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 위원장(부시장)

-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정리하고 2-2호 안전에 대해서 원안 동의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 위원들

- 재청합니다.

■ 위원장(부시장)

- 안전 2-2호 제출한도 초과사업 심사 제외 여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으로 안전 제2-3호 『지역참여사업 심사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건 2-3호 지역참여사업 심사방법 결정 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자료 1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에 의거 주민참여 사업은 조정협의회 심사 80%와 온라인 시민투표 20%를 합산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지역참여사업 한도액 44억8천5백만 원 범위 내 사업선정을 위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평가표는 자료 1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심사 방법은 평가 점수 80%와 온라인 투표를 20%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가 나온 순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2-3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으로 안건 제3호 『도 제출 시정참여사업 선정(안)』의 건을 상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자료 12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은 59건에 84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신청된 사업 중 기사행 중인 동일·유사사업, 사업목적 및 법령 등을 고려, 사업 추진가능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추진불가 사업이 31건에 43억 9천 7백만 원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8건에 5억 9천 9백만 원 조정되었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업이 28건에 34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 제주시 시장참여사업 제출 한도는 50억 4천만 원으로 제출한도에 미달하여 추진가능 사업 전체를 도 제출 사업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건 3호도 보니까 제출은 59건에 84억이 접수됐는데 추진 가능 사업이 28건에 34억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나머지 31건은 불가사업으로 결정돼서 추진가능 사업을 가지고만 저희들이 시정참여사업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좀 검토를 잘 해서 50억 4천만 원이 제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십니까?

■ 화북동 김충일 위원

- 여기 혹시 공원녹지와 누구 나오셨습니까?

화북동, 화북초등학교 후문에 구실잣밤나무 전정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데도 편성된 게 없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공원녹지와 의견있으십니까? 직원 없으십니까?

■ 화북동 김충일 위원

- 아니라면 제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 부분도 읍면동에서 물리고 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추진불가 사례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빨리 피드백을 줬으면 그거 관련해서 올라오지 않았을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경제소상공인에서 나와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까 제주시 민속 오일장 주차 방식 변경 교통 정체 해소 문제. 이 건 추진이 불가능한가요? 추진 가능 사업으로 제출되었는데요.

■ 경제소상공인과 담당팀장

- 예. 저희가 당초 사업 검토 시 추진 가능했으나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현재 직각주차로 했을 때 128대가 수용이 가능한 데 사선주차를 했을 때는 30대가 감소가 됩니다.

- 당초에 제안하신 분은 원활한 교통 흐름 방향 때문에 제안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주차하는 과정에는 편의를 거 같아서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출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 주차면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추진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상인회의 의견까지 다 들어봤는데 상인회의 의견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광고물 팀장

- 안녕하세요. 광고물 팀장입니다.
회의자료 16페이지 표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사업명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지원 교체 사업입니다.
- 당초에는 이 사업이 2021년도에 발전 기금 사업비로 29개소에 2천7백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이번에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사업과 비슷한 골목상권 시설개선 사업으로 간판 지원 사업이 해당돼서 당초에는 지역 내 유사 사업이 있고 예산이 과다하다라고 해서 추진불가로 했는데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이 사업 대상자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불가 사업을 했는데 이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자꾸만 말 많아 죄송하고 제가 야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소문이든 어쨌든 엄청 어렵다고 하니까 실국이나 과에서는 가능한 사업이든 불가하게 됐든 간에 실국의 예산을 잡아서 본 예산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쉽게 하는 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말만 참여예산을 증액했지, 시정, 도정 참여 사업비만 많아졌어요.
- 가능한 사업 중 종합민원실 노후 도로명주소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이걸 본예산으로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되지. 말만 주민참여예산 확대해서 거품만 많은거 같다. 실질적으로 칠과 본예산으로 해야지 참여예산으로 해야 득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좀 불만입니다. 이런 얘기가 민선 8기 이전에도 나온 얘기에요.

■ 위원장(부시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혹시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불가능한 사업들입니까? 선출리 흑룡 생태계 다양성 정비 정비 사업입니다.
-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50억 4천을 이제 여기는 한도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큰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사업이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 가능 사업으로 올려서 도에 제출하자는데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서에서 또 의견 있으시면, 오늘 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수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추진불가 사업 31건 44만 9천7백만 원에 대해서 사전검토는 된 부분이지만

사실 가능한 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지요.

■ 화북동 김충임 위원

- 여기 보면 그림자 조명 있는데 지금 불가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림자 조명 40대 설치 9천만 원

■ 위원장(부시장)

- 몇 쪽입니까?

■ 화북동 김충임 위원

- 그림자 조명 40대 설치 9천만 원, 검토 의견이 설치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설치 중이라서 중복해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자금 50억에 한참 못 미치니까
그림자 조명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원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 부분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가능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16쪽에 한번 삼다수술길 화장실 설치, 저류지 생활체육시설 보안, 텃밭 임대, 꽃심기 체험,
아라동 꿈에그린 2차 아파트 서측 공원주변 경관조명 설치, 청정제주 바다를 위한 환경
페스티벌 등이 있고요. 도시재생과 시민복지타운지구 잔디 구장 사업은 불가능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 서측 쪽에는 잔디 조성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사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우리 복지위생국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위생국장

- 특별한 건 아닌데 저희 경로당에 찾아가는 키오스크 사업은 현재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시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트렌드가 교육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부시장)

-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한림읍 김충희 위원

- 삼다수 숲길 화장실 설치하는 이게 사후 관리 문제로 불가인데 화장실을 필요하다고 신청했는데 관리 문제 때문에 불가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을 텐데 이걸 검토를 다시 해서 화장실이 우리 생활 문제인데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죠.

■ 위원장(부시장)

-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안건 3호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된 시정참여사업이 28건의 34억4천3백만 원입니다.
- 제출 한도액이 50억 4천만 원인데 추진가능 사업 중에서 13쪽에 각각 차선 주차선 개선 사업은 아까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라 이것을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 불가 사업에서 노인복지과의 경로당에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 5천만 원, 다음 쪽에 삼다수 숲길 화장실 설치 5천만 원, 공원녹지과에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범죄없는 안전한 공원 거리 조성 9천만 원, 도시재생과에 간판 교체 지원 사업 1억 원을, 5천만 원,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 사업이 이게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여 5천만 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가능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이제 불가사업으로, 불가사업 중 일부 사업은 추진 가능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 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호, 도 세출 시장참여사업 선정 건에 대해서는 당초 28건에 34억4천3백만 원을 제출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 31건에 35억 8천4백만 원을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쪽입니다. 11쪽에 지역참여사업 심사 결정 안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결을 했지만, 아래쪽에 5건의 4억 3천 2백만 원 대해서 사업 추진 시에 약간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조천읍, 한경면, 건입동, 삼양동, 노현동 관계자 있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심사할 때 좀 참고하십사하는 차원입니다.

■ 조천읍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천읍 중 청년 마을여행 전문가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세부 내용을 보시면 시찰성 경비, 마을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가진 경험으로

전문가를 육성한다. 이런 취지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시청에서 검토 의견을 주셔서 사업 제안지랑 의논한 결과, 시할성 경비는 편성 불가 내용으로 하고, 시 조정협의회에서 검토 시 추진 불가 사업으로 되더라도 수용한다고 사업 제안자와 논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심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다음 한경면 설명해 주십시오.

■ 한경면

○ 한경면에서 신청한 일만년의 시작 고산리, 역사문화자원 복원 사업입니다. 이걸 현재 차귀당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목이 전입니다. 전인데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나 농지전용 부담금을 받는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건입동 말씀해 주십시오.

■ 건입동

○ 예 건입동입니다. 산지천 전망대 시와 작풍 전시 포토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불명확해서 협의 대상 확인 중으로 관련 부서 사전 검토 미이행 사항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 파악이 되면 행정절차 진행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삼양동 말씀해 주십시오.

■ 삼양동

○ 삼양동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지가 미확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미확정된 게 아니고 사업 대상지는 나와 있고요. 주민 의견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사항이 있어 그것 때문에 미확정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대로면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노형동 말씀해 주십시오.

■ 노형동

○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입니다. 저희 노형동 신비마을길 1100로 꽃정원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공한지에 수국이라든지 장미 식재해서 그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는 사업인데, 관계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당해 연도만 볼거리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 진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견 주신 분께도 이러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설득시키면 문제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방금 전 얘기 들어봤는데 5건이 사업 진행 시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올라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업도 있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도 있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들을 잘 고려해서 위원님들 평가 시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올라갔으니까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말 오늘 저희도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해해주시고 논의와 회의를 거쳐 더 발전하고 좀 더 고민해서 큰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